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금산포젓갈 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원하게 뻗어간 방과제 부두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마치도 비행장활주로에 서있는것만 같다고, 부두선이 자막대기를 대고 금을 그어놓은것같이 보인다고 하시며 능금도와 품삼 사이에 제방을 막는 공사가 대단히 어려워졌는데 불과 넉달동안에 풀낸 우리 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은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하다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방과제부두의 뒤면에 여러동의 온실들을 규모있게 건설해놓았는데 착상이 좋다고, 면적리용을 효과적으로 삼았다고 평가하시였으며 어로공함속도 어로공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구석구석 정성을 기울여 정말 손색없이 잘 꾸려놓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지구에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건설할것을 결심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방대한 공사가 완공되고 이 지구가 완전히 전지개혁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당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을 받아로동시대의 결적으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하나 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이고 건설에 동원된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하게 훌륭히 건설된것만큼 해당 부대와 공장, 수산사업소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한쪽의 그림자라고, 서해지구에 최후한

이날 자연에너지를 발전소로 돌아보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백kW능력의 발전소를 주변경과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적극 지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독모의, 로몬리아, 스페인, 핀란드, 슬로베니아, 민주콩고에서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생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건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선출위원장들의 고향의 고전적로악들과 선군의 기지마라 비악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독모의 해설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로몬리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올해 조선인민이 수행해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진독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명도함에 조선인민이 올해에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스페리아주제사상연구소 책임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성준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피상과 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파열음을 제시하시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가 있기에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주제사상연구소 핀란드권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박력을 강위력한 혁명적책으로 깎

백두산 천출위인들을 에파도르 블리바르주 산 미겔에서 명예시민으로 모시기로 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경숙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에파도르 블리바르주 산 미겔에서 명예시민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백두산선출위원장 겸 명예시민청장 최봉태동지는

최룡해동지가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을 만났다

【이바나 1월 12일 본사특별발보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니카라과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였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태동지는 니카라과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 알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동지를 만났다.

최봉태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신 크나큰 공지의 자부심을 안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적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쿠바와의 방무관계를 변함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침을 표명하였다.

알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동지는 조선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조선의 최고명도자동지께서 비범한 명도력과 수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의 최고명도자동지께서 지난해

본사기자

【조선중앙통신】